

KLI 고용·노동 리포트

K o r e a L a b o r I n s t i t u t e

2014. 11. 20 | 통권 제57호(2014-09) |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고용구조 및 소득*

[요약]

-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2013년 48.1%로 OECD회원국 평균보다도 월등히 높은 것이 현실임.
- 65세 이상 노인의 임시직 증가율이 상용직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임시직 중심의 고용이 늘고 있는 등 노인의 비정규직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 자영업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노인 10명당 약 5명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등 불안정한 고용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 65세 이상 노인의 임금수준(시간당 평균임금)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노인 임금근로자의 76.5%가 저임금근로자이고, 61.2%가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10분위배율이 국제금융위기 이전인 2006년에 비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연령층 안에서 소득격차가 커졌음을 알 수 있음.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정도가 소득빈곤 상태에 놓여 있으며 특히 노인 1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70%를 넘고 있어 이들 가구에 노인빈곤이 밀집되어 있고, 일하는 노인빈곤층이 증가하고 있음.
- 65세 이상 연령층은 빈곤율도 높을 뿐 아니라 이들 내부의 소득격차나 소득불평등도가 높기 때문에 향후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쌓은 주된 경력이 새 일자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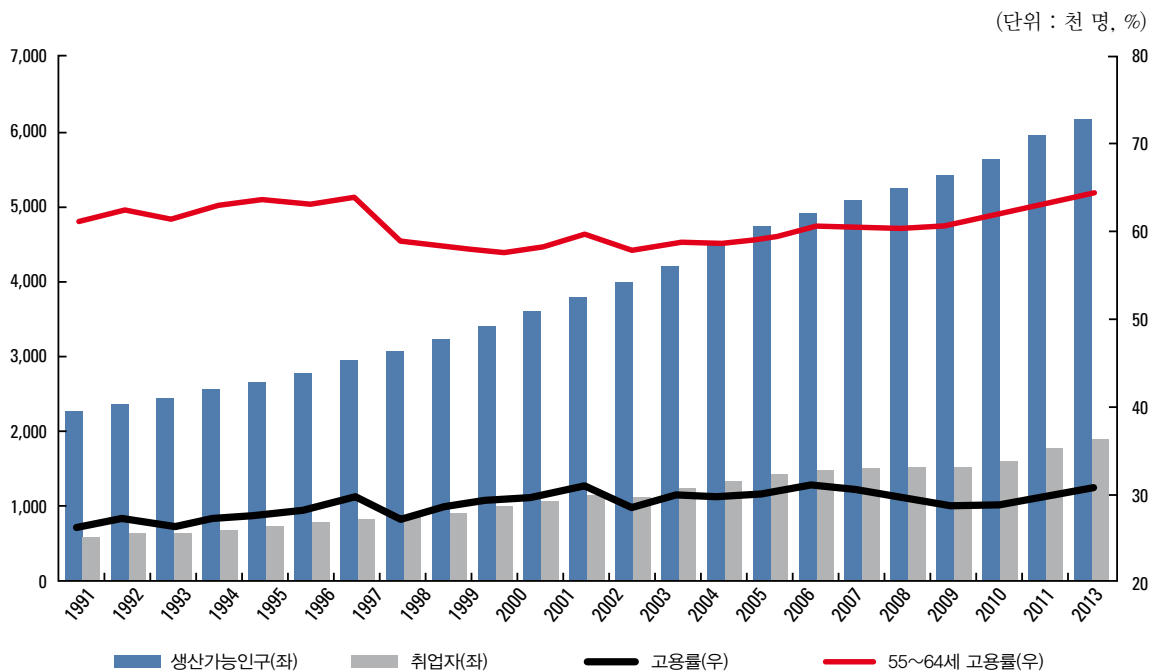
* 이 글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고용구조 및 소득」(김복순(2014), 『노동리뷰』 10월호, 한국노동연구원)을 정리한 것임.

-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 이후 가장 높고, 이들의 고용률은 OECD회원국 중 상위권에 있음.
 -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2013년 기준)은 1990년 이후 가장 높은 31.4%를 기록하면서 국제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 29.4%까지 하락한 이후 빠른 상승세임.
 - 더불어 국제금융위기 전후 4%를 넘던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2013년 현재 2.7%에 불과함.

- 65세 이상 노인의 고용증가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용률은 전년대비 0.8%p 상승함.
 - 2013년 현재 청년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상승한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의 고용률은 59.5%로 전년대비 0.8%p 상승함.
 - 노인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국제

- 금융위기 이후 상용직 중심의 임금근로자 증가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13년에는 임시직 증가 속도가 상용직을 상회하면서 임시직이 전년대비 63천 명 증가함. 노인의 임시·일용직 비중은 2009년 30%를 넘어선 이후 증가 추세임.
- 우리나라 자영업 부문의 지속적인 구조조정 결과로 2013년 자영업 비중은 22.5%로 2003년에 비해 4.8%p 감소한 반면, 노인의 자영업 비중은 같은 기간 11.6%p 감소함. 자영업 비중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노인 10명 중 약 5명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음.
- 65세 이상 노인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2004년 53.9%에 달했던 농림어업의 비중이 2013년에는 16.8%p 감소한 37.1%인 반면, 노인 취업자의 서비스업 비중은 2013년 54.8%로 같은 기간 16.5%p 증가하면서 노인의 서비스업 취업자가 백만 명을 넘어섬.

[그림 1] 65세 이상 노인의 생산가능인구, 취업자, 고용률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1〉 65세 이상 노인 생산가능인구 증감, 취업자 증감, 고용률, 종사상 지위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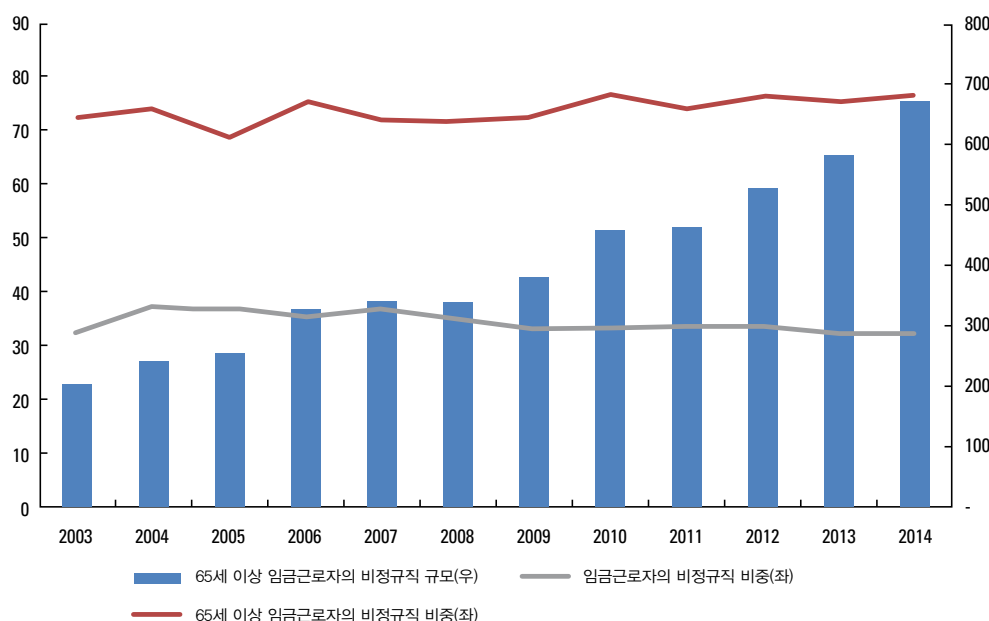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

		1997	1998	2003	2004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생산가능 인구 증감	전 체	577	496	377	377	428	495	498	462	530	514
	65세 이상	136	141	205	207	167	166	195	225	306	215
취업자 증감	전 체	361	-1,276	-30	418	145	-72	323	415	437	386
	65세 이상	70	-32	-14	102	15	17	4	74	160	115
고용률	전 체	60.9	56.4	59.3	59.8	59.5	58.6	58.7	59.1	59.4	59.5
	65세 이상	29.5	27.1	28.6	29.6	30.3	29.7	28.7	28.9	30.1	30.9
65세 이상 종사상 지위 비중	임금근로자 비중	25.2	22.8	25.8	27.2	33.1	37.7	39.7	40.8	41.1	42.9
	상용직 비중	4.7	3.7	2.6	3.2	4.8	5.9	8.1	9.1	9.7	10.4
	임시·일용직 비중	20.6	19.1	23.3	24.0	28.3	31.8	31.6	31.6	31.4	32.5
	비임금근로자 비중	74.8	77.2	74.2	72.8	66.9	62.3	60.3	59.2	58.9	57.1
	자영업자 비중	56.8	56.9	58.0	57.6	53.5	49.7	48.6	47.9	47.3	46.4
	(전체 자영업자 비중)	27.8	28.2	27.3	27.1	25.3	24.3	23.5	23.1	23.2	22.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2〉 65세 이상 노인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 및 규모 추이

(단위 :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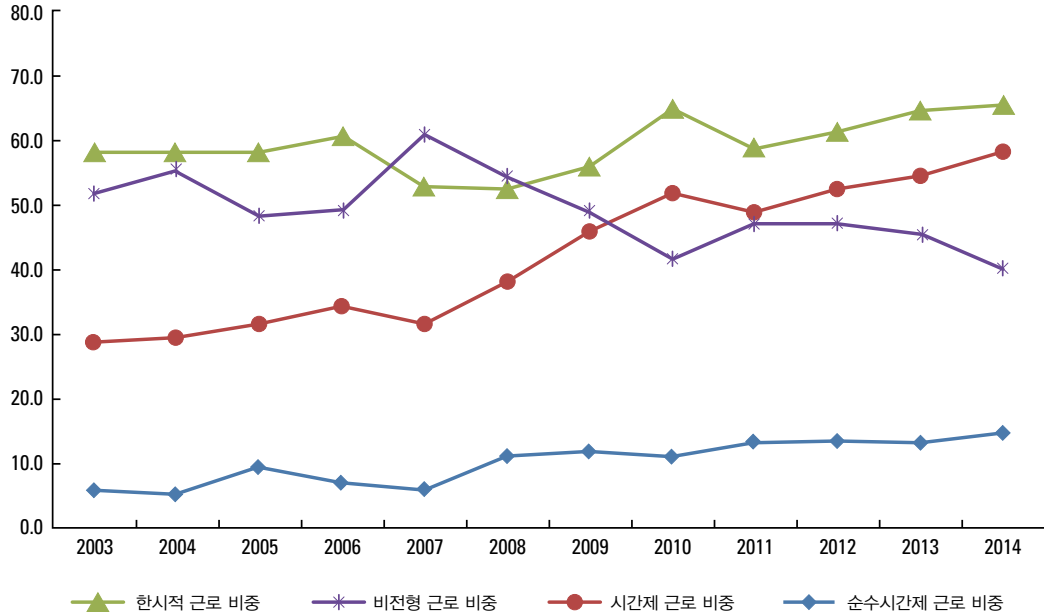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65세 이상 노인의 비정규직 규모는 674천 명으로 이들의 비정규직 비중은 전년대비 0.6%p 상승함.
 -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전체의 비정규직 비중이 전년대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인 것과 달리 노인의 비정규직 비중은 76.1%로 전년대비 0.6%p 상승함.

- 노인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별 분포를 보면, 한시적 근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간제 근로와 비전형 근로 순으로 비중이 높음. 특히 시간제 근로는 2013년 현재 58.2%로 국제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에 비해 20.1%p 증가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임. 순수시간제

[그림 3] 65세 이상 노인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비중 추이

(단위 : %)



주 : 노인의 비정규 고용형태별 비중은 비정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는 2013년 전년대비 30.5% 증가한 99천 명으로 나타남.

- 노인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인한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수입 있는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노인들은 새 일자리를 선택할 때 '일의 양과 시간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의 고용구조는 상용직보다는 임시직 비중이 더 늘고, 비정규 비중이 증가하는 등 그리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임.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만 55~79세) 부가조사」에 의하면, 2014년 5월 현재 65~79세 고령층의 38.3%가 취업상태였고, 취업 경험이 있는 노인들이 가장 오랜 기간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로는 '일거리

- 가 없어서 · 사업부진 · 조업중단'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이직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노인(만 65~79세)의 최근 1년간 구직활동 경험 비중은 국제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에 비해 5.4%p가 증가한 12.9%로 나타나 노인의 구직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상승하고 있음.
- 취업 경험이 있는 노인의 53.4%가 주된 경력과 매우 관련 있는 일자리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된 경력과 전혀 관련이 없거나 별로 관련이 없는 일자리에 취업한 비중은 2014년 35.3%로 2007년에 비해 8.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노인(만 65~79세)들이 일자리를 선택할 때 과거에는 '임금수준'과 '계속근로 가능성'이 주요한 고려사항이었으나, 최근에는 '일의 양과 시간대'를 고려해서 새 일자리를 찾겠다는 노인이 늘고 있으며, 이런 의식의 변화가 65세 이상 노인의

〈표 2〉 노인(만 65~79세)의 지난 1년간 구직활동·취업경험·새 일자리와 주된 경력과의 연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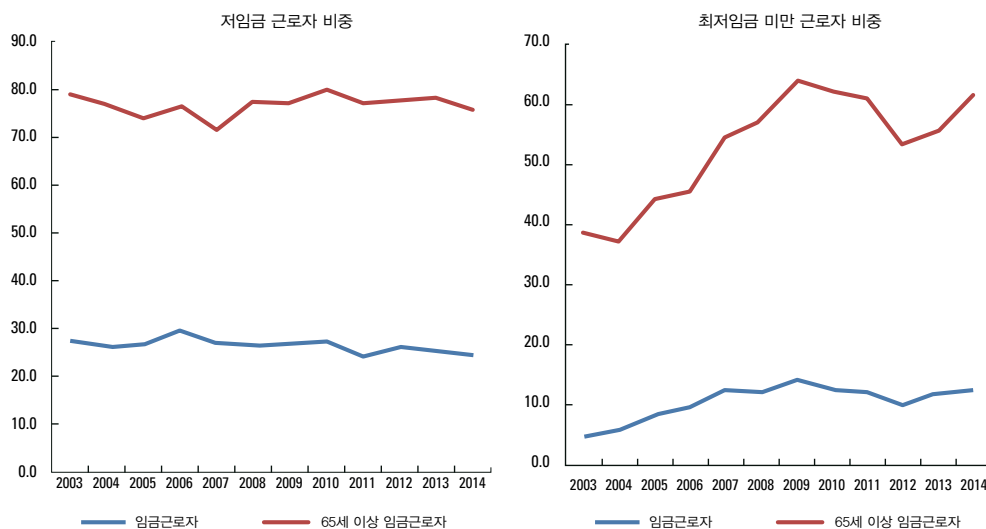
(단위 :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구직활동 경험 있음		7.5	7.6	8.5	12.6	12.2	12.6	11.7	12.9
취업 경험 있음		43.6	42.6	42.3	46.1	44.2	45.1	46.2	46.3
지난 1년간 취업한 일자리의 주된 경력과의 관련성	전혀 관련 없음	15.8	18.1	19.1	22.0	22.0	22.7	23.1	22.5
	별로 관련 없음	11.1	9.6	10.2	11.4	11.0	11.3	11.1	12.8
	약간 관련 있음	8.4	8.5	8.8	9.2	8.2	8.4	8.3	11.3
	매우 관련 있음	64.6	63.8	62.0	57.4	58.7	57.5	57.6	53.4
새 일자리 선택시 고려사항	임금수준	40.7	50.6	34.1	27.7	22.6	23.6	19.1	16.9
	일의 양과 시간대	16.9	15.6	22.0	26.2	27.9	29.4	32.7	36.3
	일의 내용	8.6	6.1	8.2	8.4	10.8	10.4	11.9	12.4
	출퇴근 거리 등 편리성	4.6	3.6	3.9	4.1	4.7	5.4	6.0	6.0
	계속근로 가능성	18.5	13.9	20.8	22.3	20.5	19.6	17.7	16.8
	과거 취업 경험과의 연관성	8.8	8.3	9.6	9.8	11.0	9.8	11.4	10.5

주 :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는 만 55~79세를 대상으로 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만 55~79세 부가조사(5월)」 원자료, 각 연도.

〔그림 4〕 65세 이상 노인 임금근로자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 및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시간제 근로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65세 이상 노인 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노인 10명 중 6명이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현실임.

- 노인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년 대비 4.4% 상승하였지만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 비정규직 노인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70.3% 수준임.
- 노인 임금근로자의 76.5%가 저임금 근로자였으며, 특히 노인 임금근로자의 10명 중 6명이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¹⁾.

■ 65세 이상 연령층 내 최하소득층과 최고소득층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소득불평등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노인의 소득상위 10%와 소득하위 10%의 소득10분위배율(균등화된 처분가능소득 기준)은 2006년 14.85배에서 2013년 20.23배로 확대되어 65세 이상 연령층 내에서 최하소득층과 최고소득층 간에 소득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노인 1인가구의 소득 10분위배율은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됨.
- 노인의 소득하위 10%와 소득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을 보면, 최저소득층의 소득점유율은 2006년 2.5%에서 2013년 1.9%로 감소한 반면, 최고소득층의 소득점유율은 같은 기간 21.8%에서 24.9%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 소득분배가 개선되지 못하고 불평등이 심

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특히 노인 1인가구의 최저소득층의 소득점유율은 2006년 2.2%에서 2013년 1.3%로 하락한 반면, 최고소득층(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은 같은 기간 28.5%에서 31.5%로 상승하여 노인 1인가구의 소득불평등이 65세 이상 노인 전체보다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전체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3년 14.6%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65세 이상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8.1%로 나타나 노인의 거의 절반이 상대 소득빈곤 상태에 놓여 있음. 특히 65세 이상 노인 1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74.0%로 나타나 노인빈곤이 1인가구에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²⁾
- 우리나라에서 빈곤선 미만에 있는 노인빈곤층의 취업률은 2013년 34.5%로 나타나 2006년 31.8%에서 2.9%p 상승한 반면, 노인 1인가구

〈표 5〉 65세 이상 노인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10분위별 평균소득 및 10분위배율 추이

(단위 : 천 원, 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0분위배율
2006	215	407	537	665	813	987	1,216	1,528	1,926	3,187	14.85 (12.88)
2013	162	347	475	610	787	972	1,185	1,499	2,008	3,272	20.23 (23.66)

주 : 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 균등화된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함.
 ()안은 65세 이상 노인 1인가구의 10분위 배율임. 농가 포함 전체 가구 대상임.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 마이크로데이터, 각 연도.

〈표 6〉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10분위별 소득점유율 추이

(단위 :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65세 이상	2006	2.5	4.4	5.7	7.1	8.2	9.2	11.7	13.8	15.8	21.8
	2013	1.9	4.0	5.5	6.7	8.6	8.9	10.9	12.5	16.2	24.9
65세 이상 1인가구	2006	2.2	4.0	5.1	6.0	7.1	8.4	9.9	12.4	16.3	28.5
	2013	1.3	3.4	4.7	5.8	6.7	7.9	9.8	12.7	16.2	31.5

주 : 균등화된 처분가능소득 기준임. 농가 포함 전체 가구 대상임.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 마이크로데이터, 각 연도.

1) 저임금근로자는 시간당 평균임금이 중위임금의 2/3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함.
 2)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수준이 빈곤선 미만인 인구 비율을 의미한다. 여기서 빈곤선은 전체 인구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중위소득의 50%임.

빈곤층의 취업률은 같은 기간 12.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노인빈곤이 실업으로 인한 빈곤뿐만 아니라 취업을 하더라도 일자리의 질이 낮은 곳에 취업함으로써 지속되고 있으며, 일하고 있는 노인빈곤층이 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음.

-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지니계수는 0.420으로 나타나 노인의 소득불평등도가 사회 전체의 소득불평등도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임. 특히 2013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1인가구의 지니계수는 0.423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미취업 상태인 노인 1인가구의 지니계수는 0.440으로 나타나 소득불평등도가 증가하는 추세임.

〈표 7〉 노인(65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 및 취업률 추이

(단위 :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상대적 빈곤율	전체	14.3	14.8	15.2	15.3	14.9	15.2	14.6	14.6
	1인가구	40.9	41.1	41.4	45.0	45.4	45.0	47.8	47.8
65세 이상 고령층 상대적 빈곤율	전체	42.8	43.6	44.1	45.9	46.3	47.6	47.2	48.1
	1인가구	70.6	71.3	70.1	76.3	76.0	75.2	76.5	74.0
65세 이상 고령층 취업률	전체	31.6	31.6	28.4	29.0	33.6	35.1	32.4	34.5
	1인가구	16.7	17.6	14.6	15.8	22.9	21.2	21.5	2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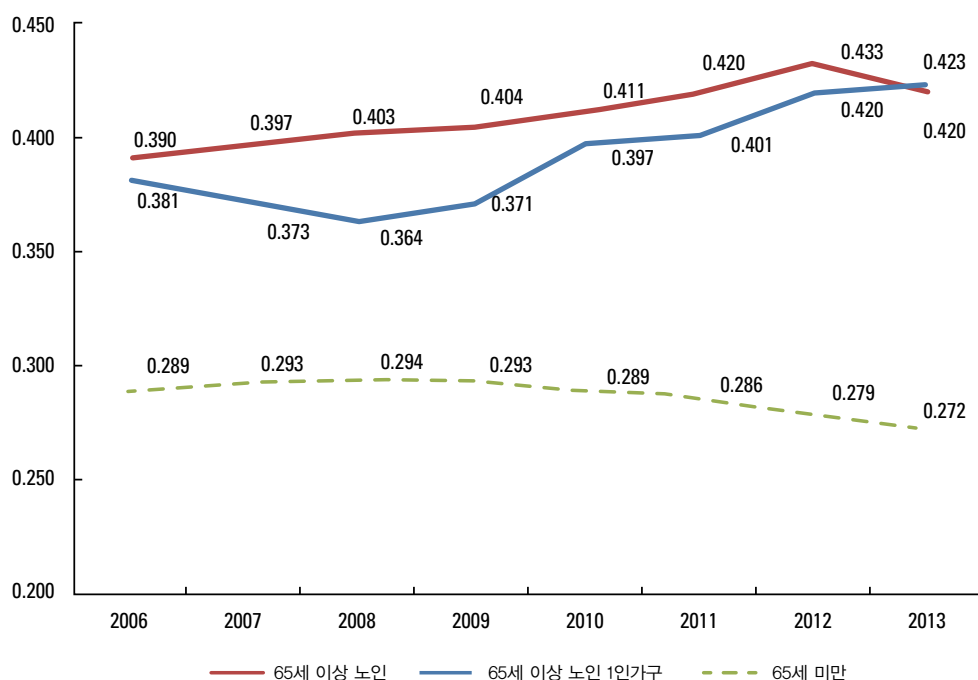
주 : 1)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수준이 주어진 빈곤선 이하인 인구비율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빈곤선 미만인 인구/총인구)×100. 상대적 노인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균등화된 처분가능소득수준이 빈곤선 이하인 인구비율임.

2) 균등화된 처분가능소득 기준임.

3) 농가 포함 전체 가구 대상임.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 마이크로데이터, 각 연도.

[그림 5] 65세 이상 노인의 지니계수 추이



주 : 균등화된 처분가능소득 기준임.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 마이크로데이터, 각 연도.

- 65세 이상 노인들이 노동시장에서 쌓은 주된 경력이 새 일자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인 대상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연령층은 빈곤율도 높을 뿐 아니라 이들 내부의 소득격차나 소득불평등도가 높기 때문에 향후 노인빈곤을 완화하

기 위한 정책은 정책으로 인한 혜택을 받는 대상을 선정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노동시장에서 쌓은 주된 경력이 새 일자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함.

〈부표 1〉 임금근로자의 연령별 저임금 근로자 비중 추이

(단위 :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 체	27.5	26.7	26.8	29.3	27.0	26.7	26.5	27.1	24.0	26.2	25.1	24.5
30세 미만	30.8	29.0	28.8	30.8	25.4	25.8	25.2	28.1	25.1	28.2	27.2	28.5
30~39세	16.2	16.8	16.8	18.2	17.0	15.6	15.0	14.6	12.2	12.9	11.9	10.8
40~49세	25.7	24.6	24.5	27.3	26.2	26.0	25.4	24.5	20.4	21.5	19.9	18.6
50~59세	36.2	33.6	34.6	37.7	35.5	34.9	34.9	34.3	30.3	33.0	30.3	27.9
60~64세	60.2	58.8	59.2	63.4	59.7	57.5	58.9	57.8	54.0	57.4	55.8	50.5
65세 이상	78.7	77.2	73.8	76.6	71.9	77.8	77.4	79.8	77.5	78.0	78.3	76.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부표 2〉 임금근로자의 연령별 최저임금 이하인 근로자 비중 추이

(단위 :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 체	4.9	5.8	8.1	9.4	12.2	12.1	13.8	12.8	12.0	9.9	11.8	12.6
30세 미만	4.6	5.8	8.4	9.1	10.1	10.9	11.4	12.1	11.3	9.5	12.4	13.7
30~39세	2.2	2.8	4.0	4.7	6.6	6.0	6.7	5.6	4.8	3.7	4.3	4.3
40~49세	3.1	3.9	5.5	6.9	10.1	10.1	11.6	9.9	8.5	6.5	7.5	7.8
50~59세	7.0	8.2	10.6	12.6	16.9	15.3	18.7	15.8	15.2	11.6	13.6	13.6
60~64세	19.3	20.3	28.6	32.0	36.9	35.3	40.3	35.9	32.8	27.5	31.1	28.3
65세 이상	38.5	37.4	44.1	45.5	54.2	57.1	63.7	61.9	60.9	53.6	55.4	61.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김복순(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02-3775-5579 / seesaram@kli.re.kr

※ 본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www.kli.re.kr 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인: 이인재 / 편집인: 남재량 / 편집·교정: 정 철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Tel : 02-3775-5514 / Fax : 02-3775-0697 / www.kli.re.kr